

정례브리핑

2020.8.31(월) 10:30, 여상기 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월요일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장관관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관입니다.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 중에 있으며, 오후 4시에는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이 예방은 일정만 공개됩니다.

9월 1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에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오전 10시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오후 2시 국회 개회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예방은 일정만 공개됩니다.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예방하고, 서울 화상상봉센터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방문은 모두발언만 공개됩니다.

이어서 9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장관실에서 면담할 예정입니다. 이 면담에는 모두발언만 공개됩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김희중 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이 예방은 일정만 공개됩니다.

다음은 차관 일정입니다.

차관은 오늘 부내에서 업무를 보고, 내일은 9월 3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차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준비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이 유튜브로 난수방송을 얼마 전에 송출했는데 가짜라는 이야기도 있고, 일각에서는 남파공작원 지령용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통일부에서는 이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와 최근 북한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영상들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를 우리나라 국민이 제한 없이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간신히 이해한 것 같은데요. 난수방송과 관련한 질문이었죠? 다음에 질문하실 분들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제가 잘 안 들리는데요. 질문, 주신 질문과 관련해서 난수방송과 관련해서는 통일부가 확인해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장관 취임 1개월이 지났잖아요. 장관께서 여러 가지 사회 종교단체들 미팅도 많이 하시고 의욕적으로 일하고 계신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도 대북제재로 막혀 있고, 또 대북 인도적 지원도 북한 당국이

거절하고 있는 마당에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가 입장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장관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고 녹록지 않은 현실이지만, 이 작은 교역부터 시작해서 점차 큰 것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들 또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창의적인 방안들을 강구하는 노력은 지속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엇그제 금강산 기업회 면담에서도 기업협회 쪽에서 '통일부가 너무 소극적인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나 현실 탓만 하고 제대로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저희가 나름대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너무 소극적이다.' 라고 평가하는 반면 동시에 또 일각에서는 '너무 나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모두를 고려하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창의적인 방안들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난수방송에 대해서 확인해 주실 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난수방송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이게 평양방송의 유튜브 계정이 맞는지 아니면 해킹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북한 정보기술 관련 매체는 멕시코에서 만들어진 가짜 계정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가 파악하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그 부분 저희도 보도를 봤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튜브 등 북한 SNS의 매체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지금 현재로는 파악하기 힘들고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상황을 파악해 나가는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아마 잘 안 들려서 그랬던 것 같은데, 최근 추가로 북한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영상들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를 우리나라 국민이 제한 없이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아까 그 부분을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북한 매체에 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보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파행위를 막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계속 협의를 해서 시점에 맞는 방안들이 마련될 때까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추가로 대북 반출 승인하신 건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일반적인 대북 반출 승인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사항 있지 않고요. 코로나19와 관련된 반출 현황은 그전에 말씀드렸던 총 6건, 반출 승인 완료 3건, 반출 준비 3건입니다.

<질문> 혹시 북한 당국과의 직접 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밑접촉이나 이런 것들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물밑접촉은 통일부가 하는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